

옛새 간의 황금 설 연휴에 국내 프로배구와 프로농구, 민속씨름, 프로당구 등 스포츠 이벤트가 펼쳐져 연휴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해외에서는 손흥민 김민재 등 유럽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약하는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역팀들의 경기는 없지만 중계방송을 통해 흥미 있는 종목을 찾아 관전을 할 수 있다. 프로농구는 설 연휴에 치열한 6강 경쟁

한다. 연휴 첫날인 25일에는 프로배구 흥국생명과의 현대건설의 경기가 인천에서 있다.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는 여자부 1위 흥국생명과 2위 현대건설의 경기로, 흥국생명 17승 5패, 승점 50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현대건설이 15승 7패, 승점 47로

국내 프로농구 6강·배구 선두 경쟁 펼쳐 프로당구 정규 투어·유럽 축구도 불거리

을 이어간다. 1위 서울 SK는 25일 7위 부산 KCC를 상대로 10연승 달성에 도전한다. 전반기 한때 1위로 올라섰다가 SK에 자리를 내준 현대모비스는 창원 LG(25일), 수원 kt(26일), KCC(30일) 전까지 설 연휴에만 3경기를 치른다. 여자프로농구에서는 1위 경쟁에 한창인 BNK 썬(15승 6패)과 우리은행(14승 7패)이 24일 맞대결

그 뒤를 바짝 쫓는다. 설날인 29일에는 남자부 1위 현대캐피탈과 2위 대한항공이 역시 인천에서 맞붙는다. 현대캐피탈은 20승 2패, 승점 58, 대한항공은 14승 8패·승점 45를 기록 중이다. 명절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민속씨름은 24일부터 30일까지 충남 태안에서 위더스

즐거움 가득 스포츠 복주머니 열어볼까

제약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를 연다. 백두급(140kg 이하)에서는 '씨름 괴물'로 주목받는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가 2년 만

의 설날대회 장사 탈환에 나선다. 김민재는 지난 2024시즌 장사 6회를 싹쓸이한 백두급 최강자이지만, 지난해 설날대회는 2위를 했다. 지난해 설날대회에서 김민재를 잡았던 최성민(태안군청)은 2022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설날 장사에 도전한

24~30일 위더스제약 태안장사씨름대회 '씨름 괴물' 김민재 설날 정상 탈환 나서

다. 2002년생 동갑내기 김민재와 최성민의 자존심 경쟁은 벌써 씨름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프로당구 PBA는 2024-2025시즌 마지막 정규 투어이자 시즌 8차 투어인 웰컴저축은행 PBA-LPBA 챔피언십 대회로 팬들을 찾아간다. 지난 22일 예선을 시작으로

30일 결승을 치른다. 남자부에서는 시즌 랭킹 1위 다비드 마르티네스(크라운해태)와 2위 강동공(SK렌터카)의 경쟁이 치열하고, 여자부에서는 '당구 여제' 김가영(하나카드)이 6연속 우승 도전이 흥미를 끈다. 해외에서는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축구 선수들이 설 연휴 축구 팬들을 찾는다.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은 24일 오전 2시 45분(한국 시간)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

그 호펜하임전에 출전하고, 26일 오후 11시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레스터시티와 대결한다.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는 25일 프라이부르크전에 출격할 예정이고, 마인츠에서 한술밥을 먹는 이재성과 홍현석은 슈투트가르트전 동시 출전을 앞두고 있다.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16강을 향해...
치열한 볼 싸움

이강인이 전반만 뒀 파리 생제르맹(프랑스·PSG)이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맨시티)에 대역전승을 거두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희망을 실려갔다. PSG는 23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2024-2025 UEFA 챔피언스리그(UCL) 리그 페이즈 7차전 홈 경기에서 맨시티에 4대 2로 이겼다. 후반 초반 먼저 두 골을 내주고 끌려갔으나 곧바로 만회에 나서 오히려 두 골 차 승리로 경기를 끝내는 저력을 보여줬다. 이제 한 경기를 남겨 둔 PSG는 3승1무3패(승점 10)로 22위에 자리해 플레이오프 16강에 오를 가능성을 남겨뒀다. 반면 맨시티는 2승2무3패(승점 8)로 25위에 처져 탈락 위기에 몰렸다. 이날 이강인은 선발 출전해 데지레 두에,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최전방에서 삼각 편대를 이루고 PSG의 공격을 이끌었으나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하고 후반 시작과 함께 우스만 뎀벨레와 교체됐다. 사진은 이날 PSG의 이강인이 맨시티와 경기를 치르는 모습. 연합뉴스

박진만 삼성 감독 “올해 목표는 당연히 우승”

1차 스프링캠프지 꺾으로 출발 투수·불펜진 등 보강 자신감 ↑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이 1차 스프링캠프지인 미국령 괌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새 시즌 구상을 밝혔다. 그는 “프로팀이라면 1위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 지난해 전문가들이 우리 팀을 최하위권으로 예상했을 때도 우리의 목표는 1위라고 말했다”며 “지난해 준우승을 했으니 올 시즌은 우승을 목표로 땀 흘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감독은 지난해 끝까지 후보로 꼽히던 삼성 라이온즈를 한국시리즈(KS) 진출로 하면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올 시즌 목표를 우승으로 잡았다는 박 감독의 말은 선발진 강화와 FA계약, 외국인 투수 계약 등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결코

과장이 아니다. 삼성은 비시즌 자유계약선수(FA) 최원태를 영입하면서 선발진을 강화했고 팀 내 FA 류지혁과 김현곤과 계약을 끌어내며 전력 유출을 막았다. 여기에 검증된 외국인 투수 아리엘 후라도와 계약하면서 투수진 강화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진만 감독은 “후라도는 키움 히어로즈에서 땀 흘린 안정적인 투수를 한 투수”라며 기대감을 비쳤다. 삼성은 올시즌 데니 레예스, 후라도, 원태인, 최원태가 선발로 테이션을 책임지고 좌완 이승현 등이 5선발 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박진만 감독이 불펜진 보강에 공을 들인 점도 우승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박 감독은 “불펜은 고참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 장기 레이스를 펼칠 때 체력 문제가 나온다”며 “이번 캠프에선 젊은 불펜 투수들의 성장에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

했다. 삼성은 지난 시즌 오승환(42), 김태훈(32), 임창민(39), 김재윤(34)이 뒷문을 책임졌지만, 시즌 막판 체력 문제를 보이며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다. 이 때문에 삼성은 올 시즌 개막에 앞서 성장 가능성이 큰 젊은 투수들의 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진만 감독은 “황동재, 이승민, 이재희, 김무신(개명 전 김윤수)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젊은 투수들이 많다”며 “특히 신인 배찬승은 공이 참 좋더라”라고 말했다. 박 감독은 “마무리 투수 김재윤은 재활 조에서 몸을 잘 만들 것이고, 오승환도 준비를 잘하는 선수”라며 “기존 불펜들과 젊은 선수들이 균형을 잘 맞춘다면 새 시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삼성 1군 선수단은 25일부터 괌에서 1차 스프링캠프 훈련을 한 뒤 2월 5일부터 일본 오키나와 온나손 아카마 구장에서 2차 훈련에 들어간다. 박준우 기자

대구 중구청 양궁팀 용혁중, 전국대회 3위

실내대회 리커브 개인전서 선전 중구청 소속으로 첫 출전→입상

대구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양궁팀 소속 용혁중 선수가 지난 14-17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열린 '제38회 한국양궁지도자협의회 전국실내양궁대회'의 리커브 남자 일반부 개인전에서 3위를 차지했다. 중구청 양궁팀은 정재현 감독 지도하에 구동남 플레잉코치, 박민범, 박성호 선수



와 이달 새롭게 영입된 용혁중 선수를 포함해 팀을 운영하고 있다. 용혁중 선수는 중구청 양궁팀 소속으로 첫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입상하며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한편 중구청 양궁팀은 올해 10개 이상의 대회 출전을 목표로 한다. 다음달에는 충북 옥천군에서 개최되는 '제27회 한국실업양궁연맹 회장기 실내양궁대회' 등 다양한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구이영 기자

이승엽야구장학재단, 10번째 환아 수술비 지원

칠곡경북대 어린이병원에 불우 환아 돕기 1천만 원 전달

이승엽야구장학재단이 칠곡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불우 환아 수술 지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전달식에는 칠곡경북대 어린이병원 김여향 원장과 이승엽야구장학재단 최치호 이사가 참석했다. 이승엽(두산 베어스 감독) 이사장은 호주 전지훈련 중인 관계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승엽야구장학재단은 2018년부터 매년 불우 환아 수술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로 10번째 후원금을 전달했다. 최치호 이사는 “병원에 있는 아이들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옆에서 환아를 간호하는 가족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준우 기자

레알, 단일 시즌 수입 '1위' 세계 최초 10억 유로 돌파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세계 최초로 단일 시즌 수입 10억 유로를 돌파한 프로 축구팀이 됐다. 레알 마드리드는 23일(한국시간) 글로벌 회계·컨설팅 업체 딜로이트가 발표한 '2025 풋볼 머니 리그' 조사에서 2023-2024시즌 10억4천600만유로(약 1조5천600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장권 판매 등 경기일 수입 2억4천800만유로, 중계권료 3억1천600만유로, 상업적 수입 4억8천200만유로로 조사됐다. 이로써 2022-2023시즌 8억3천140만유로의 수입을 기록해, 앞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맨시티)

를 제쳤던 레알 마드리드는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지난 시즌보다는 약 26% 늘었다. 2023-2024시즌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레알 마드리드는 홈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을 리모델링해 재개장한 뒤 경기일 수입이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아울러 구단 관련 상품 판매 증가와 새로운 스폰서십 유치 등으로 상업 수입도 20% 늘어났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의 맞수인 FC바르셀로나(7억6천만유로)는 홈구장 캄노우를 재건축하는 동안 규모가 작은 경기장에서 시즌을 치르면서 경기일 수입이 감소해 지난 시즌보다 총수입이 5% 줄었고, 순위도 4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연합뉴스